

충남연구원 세미나 개최(CNI 세미나 2017-060)

한국어촌민속마을의 조성을 위한 세미나

2017. 06. 26

일시 ■ 2017년 6월 26일(월), 14:00~ 17:00

장소 ■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



프로그램

□ 주제

- 한국어촌민속마을의 조성을 위한 콘셉트 및 어촌의 대표 자원을 도출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

행사 순서	행사 내용	시 간
개 회	사회 : 정지은 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14:00~14:10
발 제	각 20분	
주제 1	어촌민속자원 보존의 중요성 및 충남의 도서(어촌) 자원 발굴 발 표 : 박창원 교수(충남도립대학교)	14:10~14:30
주제 2	한국어촌민속마을 관련 국내외 선행사례 발 표 : 심창섭 교수(가천대학교)	14:30~14:50
주제 3	한국어촌민속마을이란 무엇인가 발 표 : 정지은 책임연구원(충남연구원)	14:50~15:10
휴 식		15:10~15:20
자 유 토 론	좌 장 : 이승우 실장(한국해양수산개발원) 토 론 : 정낙춘 과장(충남도청 해양정책과) 백관현 팀장(충남도청 해양정책과) 윤상헌 책임연구원(농어촌연구원) 이재언 연구원(목포대학교 도서(섬)문화연구원) 임선빈 선임연구원(한국학중앙연구원 전통한국연구소) 유보경 연구교수(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황순주 차장(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센터) 이종원 본부장(충청투데이)	15:20~17:00
폐 회		17:00~

목차

■ 발제

제1주제 : 어촌민속자원 보존의 중요성 및 충남의 도서(어촌) 자원 발굴 1

박창원 교수 (충남도립대학교)

제2주제 : 한국어촌민속마을 관련 국내외 선행사례 24

심창섭 교수 (가천대학교)

제3주제 : 한국어촌민속마을이란 무엇인가 35

정지은 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 자유토론

좌 장 : 이승우 실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토 론 자 : 정낙춘 과장 (충남도청 해양정책과)

백관현 팀장 (충남도청 해양정책과)

윤상헌 책임연구원 (농어촌연구원)

이재언 연구원 (목포대학교 도서(섬)문화연구원)

임선빈 선임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전통한국연구소)

유보경 연구교수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황순주 차장 (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센터)

이종원 본부장 (충청투데이)

01

어촌민속자원 보존의 중요성 및 충남의
도서(어촌) 자원 발굴

박 창 원 교수
충남도립대학교

어촌 민속자원의 중요성과 도서지역 문화자원

충남도립대학교
박창원

어촌민속자원의 중요성

- 동시대성을 현대라고 한다면 이 시대를 이 끌어낸 현대의 자원은 과거로부터 유래된 것
- 어촌 문화자원 연구는 현대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이며 우리 존재의 정체성에 대한 실존적 질문을 찾는 ford-da game.

근대 시대의 문화파괴와 복원의 필요성

- 현대로 오면서 과학이성의 발달로 인해 아우라의 제거작업들이 이뤄지면서 각종 근대 무속신앙의 환타지는 과학이성으로 대체되고 전통 문화에 대한 처리 방식에 대한 기준도 없이 많은 전통적 삶의 흔적이 사라지게 되었다.

근대 시대의 문화파괴와 복원의 필요성

- 해양 문화자원 역시 일본의 식민화 과정과 기독교화 과정, 및 새마을 운동 등의 근대 이념화 과정으로 삶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지역 공동체 문화의 파괴로 연결

근대 시대의 문화파괴와 복원의 필요성

- 일본 군국주의 이념 아래 진행된 일본의 식민화 과정은 동아시아 통합이라는 이념 아래 조선의 문화 왜곡이 이뤄짐.
- 근대성에 내재된 기독교의 선교열망, 문명화, 세련화는 근대 문화적 삶에 나침반 구실을 함.
- 박정희의 새마을 운동 역시 경제 근대화라는 이념을 위해 지역의 문화유산이 파괴되는 과정이었음.

어촌지역 민속자원의 중요성

- 어촌과 도서지역의 민속자원의 연구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 문화의 방언이 가장 잘 보존된 지역으로 문화의 원형성 보존을 가장 잘 가지고 있음.
- 제주도의 방언이 가장 원형을 잘 가지고 있듯이 우리 문화의 원형은 도시지역에서 멀리 있을수록 잘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큼.

충남의 도서지역 자원

- 충남의 도서문화의 경우 섬의 전래된 문화 자원의 콘텐츠화에 성공한 지역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도서문화자원이 그저 바다의 거품처럼 녹아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었음.
- 향후 이러한 도서문화자원의 보존을 위한 다각도의 실효적 접근이 필요하고 요청됨.

충남 역사문화자원의

유형별 존재 양태와 분포 특성

행정관청

- 일반 행정관청은 원산도(관사터, 국마장, 사창과 진말, 선정비), 대난지도 (관아터), 빙도(내수사 본궁) 등이 있음.
- 원산도 '관사터' 등은 모두 조선시대의 것이며 대난지도의 '관아터'는 시대미상임. 빙도의 '내수사 본궁'은 이성계의 왕실 재산관리용으로 역시 조선시대의 관청임.

군사시설의 종류

- 봉수대는 (전라북도 옥구군 어청도)-외연도-녹도-원산도-(오천면 영보리 망해정 봉수대)로 있는 연결되어 설치되었었으며, 빙도의 쑥봉에도 설치됨.
- 고대도의 조구녀가 있어 조선시대에는 수군들이 나와 목을 지키던 여라고 한다.
- 특히 원산도에는 이외에도 관의 무기창고를 의미하는 진말이 있었다는 것은 충청수영 원산진이 있었기 때문이며 진촌 마을은 충청수영의 우후(虞侯)가 근무 원산도 봉수대하던 원산진이 있던 곳으로 서쪽 언덕너머 오봉산 밑에 '관가'라고 불리는 옛 진영(鎭營)이 있던 곳이 있어 기와가 출토되었다.

놀이자원

- 놀이는 주로 제례와 관련된 놀이로서 꼬대 각시놀리기(고파도, 장고도, 호도, 원산도)가 있으며 등불써기 놀이(장고도, 고대도, 효자도, 원산도), 등바루놀이(고대도, 장고도)

동물이름 지명 자원

- 동물 연관 도서명으로는 곰 모양의 웅도, 사슴 모양의 녹도 등이 있는데 녹도는 특히 돈여와 노루녀와 함께 섬 모양 관련 전설이 있다.
- 그 외 고대도의 뱅부녀는 마을 막아준다는 방부녀가 뱀 모양과 결합하여 형성된 이름이다.
- 말과 연관자원은 원산도의 국마장이 있다.
- 그 외 물고기 관련 자원으로는 등불써기놀이, 임경업 장군을 신으로 모시는 각종 당제, 고기잡이 어로요 등이 있다.

동물이름 지명 자원

- 그 외 뱀을 주제로 한 자원으로는 장고도의 진대서낭제가 뱀 숭배신앙이며 민담으로는 우도의 쌀독에 들어간 뱀 이야기와 홍성 죽도에 사는 암컷을 찾아 바다를 건너오던 수컷 구렁이 대명이 이야기가 있다
- 새와 관련된 지명 자원으로는 원산도의 지집은 글구라는 새의 전설이 있다. 용 명칭 지명 자원은 모두 전설을 가지고 있다.
- 대난지도의 응달내와 황룡과 청룡, 장고도의 용굴, 용난바위, 용굴과 속녀 등이 있다. 이것은 바다의 신인 용왕과 용의 관련성으로 용설화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마을제례 자원

- 외연도의 전횡장군제는 이민족 신이라는 점에서 특질이 있으며 춘추전국 시대의 역사와 초한전쟁과 연계될 수 있는 등 스토리텔링의 요소들이 잘 구성되어 있다. 특히 중국의 전횡도와 연계 자원화 가능성이 있다.
- 장고도의 진대서낭제 역시 뱀을 부락의 집단 수호신으로 삼으며 뱀과 돼지가 상극이라고 하여 섬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 돼지를 기르지도 않는다.

마을제례 자원

- 조기의 신인 임경업 장군을 섬기는 섬들이 대부분인 가운데 고파도는 신할머니, 삽시도는 처녀신, 녹도는 천신, 가의도는 목판을 놓고 섬긴다.
- 특히 놀이의 일종인 등불써기 놀이는 조기잡이를 위한 놀이형 제례로 보아야 할 것으로 장고도, 고대도, 효자도, 원산도에서 행해져왔다.
- 해막은 제례 중 부정을 막기위한 임산부 피신처로의 분포지역은 전북의 어청도를 비롯하여 충남의 외연도, 녹도, 고대도, 원산도, 장고도, 안면도, 대난지도 등이 있다.

민요자원

- 민요의 주제는 등불써기 노래, 노동요, 어로요, 사랑노래, 제례요, 세월노래 등으로 나뉘어지며, 어로요가 섬 문화를 잘 드러내고 있다.

설화자원

- 인물관련 설화를 주제로 분류해보면 장수 설화가 주를 이루고 나머지 사랑과 유배 설화가 있는 정도이다. 일본관련 설화는 피해의식을 담고 있으며 나머지 중국 관련 설화와 장수 설화 등은 모두 비극 비극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인물 주제

- 외연도의 전횡장군 설화와 가의도의 가의 설화, 삼시도의 홍수래 설화 등이 역사적 사실과 연관된 전설로서 스토리 가치가 있다.

자연관련 설화

- 숲, 동물설화, 바위, 새, 샘, 언덕 등의 설화가 있다. 이중 외연도의 천연기념물 제136호 상록수림이 전횡장군설화와 연결되며, 홍수래와 관련된 지명 전설이 삼시도의 중요한 설화 자원이다.
- 색시골에서 죽은 동생이 새가되어 '계집은 고을마다 있지만 동생은 하나인데'라고 '지집은 글구'라고 운다는 '색시골 설화' 물망터의 물을 마시면 장수가 된다는 장수설화 등이 의미 있는 설화이다.

초현실 설화

- 종교 등 초현실적인 주제를 다룬 설화로는 주로 귀신과 도깨비, 당제, 풍수 설화가 주를 이룬다. 우선 귀신과 도깨비 설화는 외연도의 충청도 아줌마를 부른다는 귀신설화, 가덕이와 을덕이란 도깨비를 이긴 장수 등 도깨비와 인간의 대립 도깨비 불 목격담 등이 주를 이룬다. 다음으로는 일제가 선인의 묘에 쇠말뚝을 박았다는 이야기와 절골의 금쟁이 샘이 명당이란 풍수설화도 있다.

초현실 설화

- 그 외에 뱀(쌀독에 관한 설화)과 소(당제 일화) 관련 초현실적 이야기와 무연고 시체를 묻어주는 선행과 착한 뱀이 용이 된 명장섬 굴 설화 등이 교육적 이야기이다. 지역설화로는 난파한 기생배로 인해 장고 소리가 난다는 바위 설화, 장군수를 마시면 장군이 태어난다는 장군수 설화 등이 있다.

역사사실자원

- 고대도에 마한 때부터 사람이 정착했다고 한다.
- 충남의 서해안 사이를 지나는 해로는 고대 문화의 이동로였으며 이곳을 통해 동양 3국의 문화가 교류되고 있었다.
- 특히 백제시기 중국 남조나 당나라와의 문화 교류나 백제 멸망기 당의 수군이 침략, 통일신라시기 중국과의 열린 출구로서 이들 해로는 매우 중시되었다.

역사사실자원

- 통일신라 말이나 고려시대에 한반도와 중국의 강남문화와 연결되는 고대해로는 마치 오늘날의 고속도로처럼 그 시대의 문화, 경제적인 보급의 인터체인지로서 역할을 하였다.
- 고려말 왜구의 출몰이 잦아 “空島政策”을 실시.

역사사실자원

- 세종 20년 전후(15세기 초 중엽) 에 이르러서야 서남해 연안의 행정체제를 겨우 수립.
- 조선 후기에 이주집단이 현 주민의 직계 혈조인 ‘입도조’인 경우가 많다.
- 도피처로서도 임진왜란시 유부도 부자 도피처, 역사상 한반도 전쟁이 없었던 흥성 죽도의 ‘피난꼬지’ 등이 있고, 이민족 피난처로는 가의라는 인물의 도피처인 가의도, 제나라 왕족인 전횡장군 등의 설화가 내려오고 있다.

역사사실자원

- 그 외에 우리나라 최초로 기독교 선교역사의 장을 열었던 고대도 귀출라프 선교사의 방문 과 의병 최후의 전투로서 기록되는 소난지도 의병전투 역시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다.

유적과 유물자원

- 유적과 유물로는 구석기유물, 도자기, 돌무덤, 조개더미, 질그릇, 토기 등이 발견되었다.

지명설화 자원

- 지명유형으로는 섬지명, 골짜기, 관청, 동굴, 나무나 당제관련, 돌, 동물, 바위, 산, 샘, 섬 관련 지명이 특색이 있으며 이 중에서 홍수래 설화와 전횡장군 설화가 활용가능성이 있다.

감사합니다.

어촌 민속자원의 중요성과 도서지역 문화자원

박창원 | 충남도립대학교 교수

I. 어촌민속자원의 중요성

1. 현재와 과거

우리는 오천년의 역사를 지닌 민족의 기간을 자랑한다. 이것은 역사가 짧은 국가보다 더욱 우월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역사는 현재의 자산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서 우리 민족과 국가의 유전자는 구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그만큼 긍정적인 가능성이 큰 민족과 국가라고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의 동시대성을 현대라고 한다면 이 시대를 이끌어낸 현대의 자원은 과거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그러므로 고대와 중세, 그리고 근대는 현재인 현대의 우리의 근원이며 우리의 부모인 것이다. 이러한 과거 문화유산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작업은 현대의 본질을 파악해내며 현대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재 우리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서 그들의 역사문화적 전통을 통한 정신을 올바르게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해악한 이데올로기가 탄생되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그 민족은 역사의 질곡으로 빠져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있는 민속자원에 대한 탐구는 민족지적인 차원의 거대 담론에서도 이뤄져야 하지만 인간의 본질이라는 우리에게 영원하고 선험적인 주제에 대한 탐구를 함께해야 한다. 그 주제는 바로 우리 인간의 내면세계 깊은 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귀착되어야 한다. 그 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존재의 정체성에 대한 실존적 질문에서 연유한다.

과거의 삶의 세계와 현재의 삶의 세계의 만남이 바로 민속자원의 연구의 본질이며 중요성이다.

2. 근대 시대의 문화파괴와 복원의 필요성

우리의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의 식민지화 과정과 기독교화 과정, 및 새마을 운동 등의 근대 이념화 과정이 진행되었고 이 이념화 과정은 삶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지역 공동체 문화의 파괴가 이뤄진다. 근대성에 내재된 기독교의 선교열망, 문명화, 세련화는 근대 문화적 삶에 나침반 구실을 하게 된다. 이러한 근대화와 서구화라는 근대화 과정에서 한자 문화 자체를 단절하고 우리의 전통으로부터 떼어내려는 작업이 생겨나게 되었고, 전통의 유토피아의 개념 역시 기독교적 천국으로 대치되고 만다.

일본의 식민지화과정은 동아시아 통합이라는 이념 아래 저질러진 일본의 군국주의의 이념에 의한 조선의 약탈이었다.

해방과 한국 전쟁 이후에도 우리는 결핍의 명찰을 달고, 경제적 근대성의 나침반을 쫓아가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의 근대화는 정신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의 부조화의 특징을 보이는 시기로 규정된다. 박정희의 새마을 운동 역시 경제 근대화라는 이념을 위해 지역의 문화유산이 파괴되는 과정이었다. 당시에 모든 문화적 가치들은 분서갱유하듯 파괴되었고 이러한 과정은 근대화라는 거대 프로젝트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다. 이렇듯 근대화 과정은 과거 전통문화의 훼손의 역사이다.

특히 과학이성의 발달로 인하여 아우라의 제거작업들이 이뤄지면서 각종 근대 무속신앙의 환타지는 과학이성으로 대체되고 전통 문화에 대한 처리 방식에 대한 기준도 없이 많은 전통적 삶의 흔적들이 사라지고 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조사되어진 민속자원에 대한 보존과 재발굴, 혹은 복원의 필요성은 필연적으로 등장하며, 해양민속자원의 복원 작업은 마을만들기 등 도시재생 사업보다 좀 더 근원적인 우리 존재에 대한 선행적인 이해와 해석의 작업들로 이해될 수 있다.

3. 어촌지역 민속자원의 중요성

어촌과 도서지역의 민속자원의 연구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 역사의 방언이 가장 잘 보존된 지역이라는 문화의 원형성과 연관되어 있다. 해양과 도서는 각각 지니고 있는 생태적 환경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생활양식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다. 그래서 인간의 다양성에 관심을 갖는 전 세계의 인류학자나 민속학자들은 일찍부터 해양과 도서지역과 도서민들의 생활양식과 그 변화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연구해 왔다.

제주도의 방언이 가장 원형을 잘 가지고 있듯이 우리 문화의 원형은 도서지역에서 멀리 있을수록 잘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인류학자들이 언어학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집중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고립된 지역으로서 섬사회란 원시문화의 기록을 위한 표본적인 공간으로 인류학적 이론과 연구방법의 발전을 위해서 고무적이고 풍부한 자료들을 제공해 왔다.

한국의 경우 삼면이 바다이어서 많은 해양지역이 있고 한반도 인근해역에는 수많은 섬들이 산재해 있어서 한국문화의 원형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역시 어촌지역이야말로 자신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지식의 근원이 되고 있다.

또한 어촌 지역 문화는 한국문화의 하위문화의 하나이다. 거대 담론으로 이어지는 한국사의 하위문화로서 문화 확인의 가능성을 물의 끝인 어촌과 도서문화의 민속자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폐쇄된 지역으로서 도서지역의 문화양식에 대한 복원은 우리 민족의 과거의 원형을 가장 잘 드러내 줄 수 있음에도 많은 문화양태들이 소멸되고 있어 그 보존과 복원이 시급하다.

또한 도서지역의 문화는 우리 한국문화자원의 풍부성을 담보해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도 보존과 연구가 필요하다. 도서지역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문화요소는 도서 환경내의 자원이용과 관련된 주민들의 적응전략의 소산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상이한 도서 환경은 가용자원의 차이를 뜻하게 되며 자원 이용 과정에서 용이한 어떤 행위양식이 채택되어 세대를 거쳐 지속됨으로써 한 도서의 독특한 문화 요소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문화 요소는 도서내의 가용자원의 한계에 적응하는 주민들의 적응전략의 한 양상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다. 도서지역의 독특한 문화요소들은 한국문화의 다양성을 이루며 한국문화의 내용을 풍요롭게 하는 요소이다.

II. 충남의 도서지역 자원

필자가 [충남도서종합개발계획] 중 도서문화 부분을 맡아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2013년에 직면한 현상은 많은 도서문화자원이 이미 사라진 뒤이거나 사라지고 있다는 부분이다. 또한 발굴된 문화자원을 문화컨텐츠화에 성공한 지역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도서문화자원이 그저 바다의 거품처럼 녹아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므로 향후 이러한 도서문화자원의 보존을 위한 다각도의 실효적 접근이 필요하고 요청된다.

1. 충남 역사문화자원 유형별 존재 양태와 분포 특성

1) 관청 및 군사시설

(1) 행정관청

- 일반 행정관청은 원산도(관사터, 국마장, 사창과 진말, 선정비), 대난지도 (관아터), 빙도(내수사 본궁) 등에 한정되게 존재했다.
- 원산도 관사터 등은 모두 조선시대의 것이며 대난지도의 관아터는 시대미상이며, 빙도의 내수사 본궁은 이성계의 왕실 재산관리용으로 역시 조선시대의 관청이다.

(2) 군사시설의 종류

- 봉수대는 (전라북도 옥구군 어청도)-외연도-녹도-원산도-(오천면 영보리 망해정 봉수대)로 있는 연결되어 설치되었었으며, 빙도의 쑥봉에도 설치되었다.
- 고대도의 조구녀가 있어 조선시대에는 수군들이 나와 목을 지키던 여라고 한다.
- 특히 원산도에는 이외에도 관의 무기창고를 의미하는 진말이 있었다는 것은 충청수영 원산진이 있었기 때문이며 진촌 마을은 충청수영의 우후(虞侯)가 근무 원산도 봉수대하던 원산진이 있던 곳으로 서쪽 언덕너머 오봉산 밑에 ‘관가’라고 불리는 옛 진영(鎭營)이 있던 곳이 있어 기와가 출토되었다.

2) 놀이자원

- 놀이는 주로 제례와 관련된 놀이로서 꼬대각시놀리기(고파도, 장고도, 호도, 원산도)가 있으며 등불써기 놀이(장고도, 고대도, 효자도, 원산도), 등바루놀이(고대도, 장고도)가 있다.

3) 동물이름 지명 자원

- 동물 연관 도서명으로는 곰 모양의 웅도, 사슴 모양의 녹도 등이 있는데 녹도는 특히 돈여와 노루녀와 함께 섬 모양 관련 전설이 있다.
- 그 외 고대도의 뱀부녀는 마을 막아준다는 방부녀가 뱀 모양과 결합하여 형성된 이름이다.
- 말과 연관자원은 원산도의 국마장이 있음
- 그 외 물고기 관련 자원으로는 등불써기놀이, 임경업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당제, 고기잡이 어로요 등이 있다.
- 그 외 뱀을 주제로한 자원으로는 장고도의 진대서낭제가 뱀 승배신앙이며 민담으로는 우도의

쌀독에 들어간 뱀 이야기와 홍성 죽도에 사는 암컷을 찾아 바다를 건너오던 수컷 구렁이 대명이 이야기가 있다.

- 새와 관련된 지명 자원으로는 원산도의 지집은 글구라는 새의 전설이 있다.
- 용 명칭 지명 자원은 모두 전설을 가지고 있다.
- 대난지도의 응달내와 황룡과 청룡, 장고도의 용굴, 용난바위, 용굴과 속녀 등이 있다. 이것은 바다의 신인 용왕과 용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바다 회오리가 용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한 이유에서 용 설화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그 이외에 과거 쥐가 많아 상투가 찢릴정도라고 하는 우도, 지네가 많아 중들이 절을 포기했다는 응도의 이야기, 호랑이를 피했지만 놀라 백발이 돼 죽었다는 채장수이야기 등이 동물 연관 자원이다.

4) 마을제례 자원

- 대부분의 제례가 근대화 과정에서 사라지는 상황에서 섬기는 신에 대한 차이가 난다. 특히 오연도의 전횡장군제는 이민족 신이라는 점에서 특질이 있으나 춘추전국 시대의 역사와 황우와 유방의 전쟁인 초한 전쟁과 연계될 수 있는 등 스토리텔링의 요소들이 잘 구성되었다. 특히 중국의 전횡도와 연계되는 점도 의미가 있다.
- 장고도의 진대서낭제 역시 뱀을 부락의 집단수호신으로 삼으며 뱀과 돼지가 상극이라고 하여 섬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 돼지를 기르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스토리텔링 요소가 잘 구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 조기의 신인 임경업 장군을 섬기는 섬들이 대부분인 가운데 고파도는 신할머니, 삼시도는 처녀신, 녹도는 천신, 가의도는 목관을 놓고 섬긴다. 장고도는 뱀, 외연도는 이민족신인 전횡장군을 섬긴다.
- 특히 놀이의 일종인 등불써기 놀이는 조기잡이를 위한 놀이형 제례로 보아야 할 것으로 장고도, 고대도, 효자도, 원산도에서 행해지다 현재는 장고도와 고대도에서 최근까지 진행되었다.
- 해막의 분포지역은 전북의 어청도를 비롯하여 충남의 외연도, 녹도, 고대도, 원산도, 장고도, 안면도, 대난지도 등이 있다.

5) 민요자원

- 민요의 주제는 등불써기 노래, 노동요, 어로요, 사랑노래, 제례요, 세월노래 등으로 나뉘어지며, 어로요가 섬 문화를 잘 드러내고 있다.

6) 설화자원

- 인물관련 설화를 주제로 분류해보면 장수설화가 주를 이루고 나머지 사랑과 유배 설화가 있는 정도이다. 일본관련 설화는 피해의식을 담고 있으며 나머지 중국 관련 설화와 장수 설화 등은 모두 비극 비극적 내용을 담고 있다.

7) 인물 주제

- 외연도의 전횡장군 설화와 가의도의 가의 설화, 삼시도의 홍수래 설화 등이 역사적 사실과 연관된 전설로서 스토리 가치가 있다.
- 자연관련 설화로는 숲, 동물설화, 바위, 새, 샘, 언덕 등의 설화가 있다. 이중 외연도의 천연기념물 제136호 상록수림이 전횡장군설화와 연결되며, 홍수래와 관련된 지명 전설이 삼시도의 중요한 설화자원이다. 홍수래 관련 지명전설은 지명편에 설명 예정이다. 색시골에서 죽은 동생이 새가 되어 '계집은 고을마다 있지만 동생은 하나인데'라고 '지집은글구'라고 운다는 '색시골 설화' 물망터의 물을 마시면 장수가 된다는 장수설화 등이 의미 있는 설화이다.

8) 초현실 설화

- 종교 등 초현실적인 주제를 다룬 설화로는 주로 귀신과 도깨비, 당계, 풍수 설화가 주를 이룬다. 우선 귀신과 도깨비 설화는 외연도의 충청도 아줌마를 부른다는 귀신, 가덕이와 울덕이란 도깨비를 이긴 장수 등 도깨비와 인간의 대립, 도깨비 불 목격담 등이 주를 이룬다. 다음으로는 일체가 선인의 묘에 쇠말뚝을 박았다는 이야기와 절골의 금쟁이 샘이 명당이란 풍수설화 등이 있다.
- 그 외에 뱀(쌀독에 관한 설화)과 소(당계 일화) 관련 초현실적 이야기와 무연고 시체를 묻어주는 선행과 착한 뱀이 용이 된 명장섬 굴 설화 등이 교육적 이야기이다. 지역설화로는 난과한 기생배로 인해 장고소리가 난다는 바위 설화, 장군수를 마시면 장군이 태어난다는 장군수 설화 등이 있다.

9) 역사자원

- 고대도에 마한 때부터 사람이 정착했다고 함.
- 충남의 서해안 사이를 지나는 해로는 고대문화의 이동로였으며 이곳을 통해 동양 3국의 문화가 교류되고 있었다.
- 특히 백제시기 중국 남조나 당나라와의 문화 교류나 백제 멸망기 당의 수군이 침략, 통일신라시기 중국과의 열린 출구로서 이들 해로는 매우 중시됨.
- 통일신라 말 장보고 선단의 안내로 중국에 불법을 구하러 갔던 일본인 승려 圓仁의 여행기 「入唐求法禮行記」, 고려 초에 송나라의 사신 徐鏡의 「高麗圖經」 을 통해 확인
- 통일신라 말이나 고려시대에 한반도와 중국의 강남문화와 연결되는 이들 고대해로는 마치 오늘날의 고속도로처럼 그 시대의 문화, 경제적인 보급의 인터체인지로서 역할을 함.
- 고려말 왜구의 출몰이 잦아 “空島政策”을 실시.
- 세종 20년 전후(15세기 초 중엽) 에 이르러서야 서남해 연안의 행정체제를 겨우 수립.
- 조선 후기에 이주집단이 현 주민의 직계 혈조인 ‘입도조’인 경우가 많다.
- 도피처로서도 임진왜란시 유부도 부자 도피처, 역사상 한반도 전쟁이 없었던 홍성 죽도의 ‘피난 꼬지’ 등이 있고, 이민족 피난처로는 가의라는 인물의 도피처인 가의도, 제나라 왕족인 전횡장군 등의 설화가 내려오고 있다.
- 그 외에 우리나라 최초로 기독교 선교역사의 장을 열었던 고대도 귀출라프 선교사의 방문 과 의

- 병 최후의 전투로서 기록되는 소난지도 의병전투 역시 중요한 역사적 사실임.
- 다양한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10) 유적과 유물자원

- 유적과 유물로는 구석기유물, 도자기, 돌무덤, 조개더미, 질그릇, 토기 등이 발견되었다.

11) 지명설화 자원

- 지명유형으로는 섬지명, 골짜기, 관청, 동굴, 나무나 당제관련, 돌, 동물, 바위, 산, 샘, 섬 관련 지명이 특색이 있으며 이 중에서 홍수래 설화와 전횡장군 설화가 활용가능성이 있다.

02

한국어촌민속마을 관련 국내외 선행사례

심 창 섭 교수
가천대학교

한국어촌민속마을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2017. 6. 26

가천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심창섭



목차

I. 어촌민속마을의 개념화

II. 국내 사례 및 시사점

1. 부산 어촌민속관
2. 백미리 어촌민속마을
3. 경기만 에코뮤지엄

III. 국내 사례 및 시사점

1. 다케토미 민속마을(일본)
2. 스티브스톤(캐나다)
3. 타이오(홍콩)
4. 조이데르해 박물관(네덜란드)

IV. 종합 시사점

I. 어촌민속마을의 개념화



“everything is tourism”

(Jan Munt(1994))



I. 어촌민속마을의 개념화

해안경관

해수욕장, 해양레저스포츠, 일출/일몰, 유람선, 등대, 바닷길, 포구, 전망대, 기암괴석, 방풍림

Why?

어촌민속마을의 목적이 무엇인가?
(경제적/사회문화적 파급효과)

해양생태

갯벌, 어류, 조개류, 갑각류, 파충류, 해조류, 산호류, 거북, 철새, 바다늪시, 고래, 물범

What?

어촌민속이란 무엇인가?
(구별되는 콘텐츠로서 어촌의 정체성)

어촌문화

먹거리, 향구, 마을문화, 특산물, 역사유적, 건축, 취락, 어선, 풍어제, 어구어법, 지역축제, 염전, 양식장, 음악, 그림

How?

어촌민속마을 만들기? 보전하기? 연출하기?
(관광자원개발의 최적수준 찾기)

Who? Where? When?

II. 국내 사례

부산어촌민속관(부산 북구)

-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의 분관으로 2007년 개관하였으며 '강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어촌문화여행'을 테마로 함
- 우리나라 최대 해양도시인 부산의 어촌문화를 계승발전하는 목적
- 낙동강민속어촌실과 부산어촌민족실로 구분
- 시대별 어로활동, 전통어업, 문화유적, 어촌민속 등의 전시 및 시청각 자료 제공
- 다양한 체험교육프로그램(띠배만들기, 환경배움터, 해양생물관찰 등) 운영



어촌민속마을의 기본요소로서의 전시, 체험, 교육

II. 국내 사례

백미리 어촌체험마을(경기 화성시)

- 2016년 기준 연간 15-20만 방문 + 외국인 방문객 1500명 방문
- 수도권 인접 + 넓은 갯벌 + 양질의 해산물
- 백가지 맛이 있는 마을 - 쭈꾸미, 밀국낙지, 대하 및 전어, 바지락, 망둥이 조림 등
- 젊은 인적자원(젊은 귀어인 + 개방적 어촌계)
- 현대+전통적 체험 (카약, 카누, 스킨스쿠버, 바지락캐기, 사두질, 독살, 건강망 등)
- 계획 - 해수풀장, 염전체험, 투명카누, 굴축제
- 성수기(6-11월), 비수기(1, 2, 3월) 뚜렷



열린 문화를 바탕으로 한 다채로운 어촌 매력 창조

II. 국내 사례

경기만 에코뮤지엄(경기도)

- 경기도 안산, 화성, 시흥, 김포 등에 걸친 528km의 경기만이 공간적 배경 (행정구역이 아닌 테마를 기반으로 한 접근)
- 시화호(안산), 제부도(화성), 갯골(시흥) 등
- 대규모 개발을 탈피한 친환경적 개발 (주민참여, 현지보존, 문화재생)
- 유산의 물리적 이동없이 에코뮤지엄 컬렉션 100선(역사, 인물, 음식, 자연 등) 선정 및 연결
- 코어박물관 + 위성박물관 네트워크



독특한 커뮤니티들이 모여 만드는 네트워크관광

III. 국외 사례

다케토미 민속마을(일본 오키나와)

- 오키나와 이시가키항에서 고속선으로 10분 소요되는 면적 5.43km² 인구 360명의 작은섬
-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전통보존지구로 현대적 건물 볼 수 없으며 걷기+자전거+물소달구지를 이용해서만 관광 가능
- 주민 자치기구를 통한 의사결정
- 호시노야 오키노야 : 오키나와 전통건축을 활용한 고급리조트
- 다케토미 민예관 : 섬의 자생 염료를 이용한 작품 및 직물 제작 공정을 전시
- 자연학습길, 백사장, 일몰명소 등



잘 보전되어 매력적이지만 쾌적한 어촌민속마을

Ⅲ. 국외 사례

스티브스톤(캐나다)

- 밴쿠버 최남단 리치몬드에 위치한 인구 약 9만 명의 어촌마을로 근대문화유산지구
- 현재도 캐나다 최대인 600척의 낚시배를 가진 어촌마을
- 연어축제, 범선축제(Tall ships)
- 고래관찰투어
- 폐쇄된 연어통조림 공장을 박물관으로 개조
- Fisher man's Wharf (해산물 판매), 브리태니아 조선소 유적지(과거 어업 전시)



전통어촌, 근대어촌 그리고 살아있는 현대어촌

Ⅲ. 국외 사례

Tai O(홍콩)

- 란타우섬 서부에 위치한 인구 4000명의 작은 어촌마을로 여러 세대에 걸쳐 란타우섬 갯벌 인근에 살아온 어촌사람들인 탕카족의 고향
- 수상가옥(팡옥) - 300여년전부터 갯벌 위에 죽마로 만들어진 집에서 생활했던 것을 보존
- 재개발의 위기에서 수상가옥 보전을 결정
- 핑크돌고래투어 - 모터보트를 타고 핑크돌고래 및 수상가옥 관람
- 타이오 시장 - 해산물, 먹거리, 기념품 등



보전과 개발사이 ... 어촌민속마을의 문화적 지속가능성이란?

Ⅲ. 국외 사례

조이데르해 박물관(네덜란드)

- 네덜란드 요트정박장으로 유명한 앤크해우즌 시에 위치하였으며 조이데르해 지역의 어촌의 전통적인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
- 마을에는 연기자들이 실제 생활의 모습을 재현
- 실내박물관 : 민속촌 형태로 15에이커의 면적에 전통적 건물, 교회, 어업창고, 정미소, 치즈창고, 가게, 주거지 등을 보전함
- 실내박물관 : 목선을 전시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며 어촌역사와 관련된 사진, 의복을 전시
- 지속적으로 교육 및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 및 다양한 이벤트, 전시를 기획하여 개최



관광객들이 기대하는 어촌민속마을의 모습은?

Ⅳ. 시사점

낯설지만 친숙한 어촌민속마을 만들기

- 관광경험 = 낯설(새로움, 모험, Outsideness) + 친숙(편안, 안전, Insideness)
- 잘 보전된 특색있는 어촌콘텐츠 + 편리하고 글로벌한 수용태세(숙박, 교통, 안전, 정보 등)
- 문화적 지속가능성 : 지역문화 보전과 관광상품화의 최적지점 찾기
- 지역주민 : 무엇을 어디까지 보전할지 정의하는 어촌민속마을의 능동적 주체

일본 다케토미 민속마을



백미리 어촌체험마을



IV. 시사점



관광객들이 기대하는 진짜 어촌

- 관광객 :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진정성(Authenticity)을 추구하는 사람
- 어촌민속마을의 객관적 진정성(에코뮤지엄) + 구성적 진정성(민속촌)
- 실존적 진정성 : 어촌에서 도시민이 경험하는 사색과 힐링(길, 한달살기, 공유숙박)
- 미디어 진정성 : “진짜” 어촌을 결정하는 대중매체에의 적절한 노출을 위한 전문적 관리
- 시간적 진정성 : 변화가 지속되어 반복적 재방문이 필요한 살아있는 마을(계절별 매력)

tvN 삼시세끼 어촌편



태국 코사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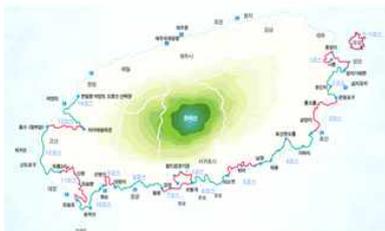
IV. 시사점



포스트모던 시대의 모듈형 어촌민속마을 개발

- 포스트모던 관광 : 동일한 관광대상에 대한 관광객의 서로다른 의미만들기(Signification)
- 무한대의 다양한 욕구를 지닌 관광객에 대한 맞춤형 어촌민속마을?
- 거점개발에서 선형(線形) 개발로 : 저마다의 특색이 있는 작은 어촌마을 잇기
- 저마다의 특색있는 콘텐츠(경관, 먹거리, 체험)를 가진 마을들의 무수한 조합(모듈형 개발)

제주 올레길



강릉 강문 해변



IV. 시사점



Imagine
your
Korea



감사합니다

03

한국어촌민속마을이란 무엇인가

정 지 은 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한국어촌민속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용역

2017. 11



INDEX



 어촌의 여건 및 현황

 한국어촌민속마을의
개념 및 방향 도출

 한국어촌민속마을의 콘셉트

 논의 주제



01 어촌의 여건 및 현황

- 01. 한국어촌민속마을 조성의 필요성
- 02. 국내 해양관광 활동의 현황 및 여건
- 03. 어촌 관련 계획 및 정책
- 04. 어촌민속문화 보존의 당위성

1. 한국어촌민속마을 조성의 필요성

어촌의 현황



- 급격한 어민의 고령화와 소규모 어촌의 폐촌화 현상
- 어업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등 문제가 제기됨

어촌 자원의 보존



- 내륙지역과는 차별화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적인 어촌공간의 조성이 필요

중앙정부



- 수산물 생산 위주의 정책
- 향후 어촌산업의 다양화, 문화자원의 보존 등을 포함하는 정책이 필요

전통적인 어촌 모습과 자원의 보존을 위한
한국어촌민속마을 조성의 필요

2. 국내 해양관광 활동의 현황 및 여건



우리나라에는 해양문화자원을 포함하여, 350여 개의 해수욕장, 갯벌, 해상국립공원 등 자연자원과 4,000여 개 이상의 어촌, 2,000여 개의 어항 등의 관광을 보유

2. 국내 해양관광 활동의 현황 및 여건

- ㉠ 해수욕 활동, 수산물 맛보기 등 단편적인 관광 활동의 비중이 높음
- ㉠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거나, 해양문화를 소재로 한 관광활동은 부족한 상황(국토해양부, 2008)



- ㉠ 자연자원 중심의 해양관광개발은 **물리적 시설의 마련**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광 기반시설 조성과의 연계되지 못할 경우 해양관광활동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음
- ㉠ 또한 **자연자원 중심의 관광개발은 계절에 영향을 받게 됨**(해양수산부, 2006)
- ㉠ 따라서 해양관광활동의 다변화를 위해서는 **자연자원의 활용과 더불어 해양문화자원이나 어촌과 연계한 프로그램의 발굴**이 필요

2. 국내 해양관광 활동의 현황 및 여건

* 해양문화자원업무 담당 공무원 인식조사

ㄱ 해양문화자원의 보유 현황

어촌생활양식 76.4% > 민화, 설화 등 이야기 67.7% >
해양역사 66.1% > 문화재 65.4% > 전시시설 52.0%

ㄴ 해양문화자원의 정책 현황

발굴 정책 37.0% > 적극적 개발 정책 35.0% >
소극적 관리 정책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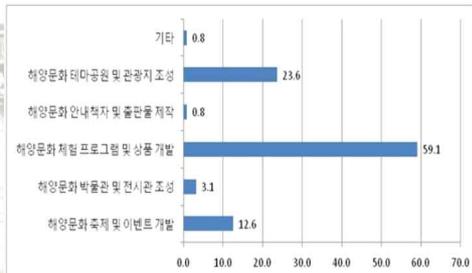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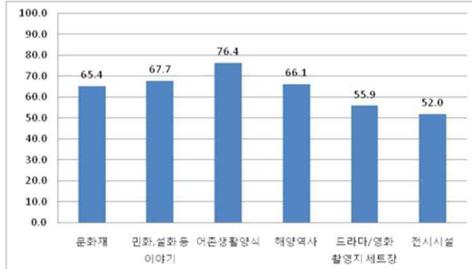
ㄷ 해양문화 관광자원화의 효과적 방법

해양문화 체험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 59.1% >
해양문화 테마공원 및 관광지 조성 23.6% >
해양문화축제 및 이벤트 개발 12.6% >
해양문화박물관 및 전시관 조성 3.1%

* 해양문화관광객(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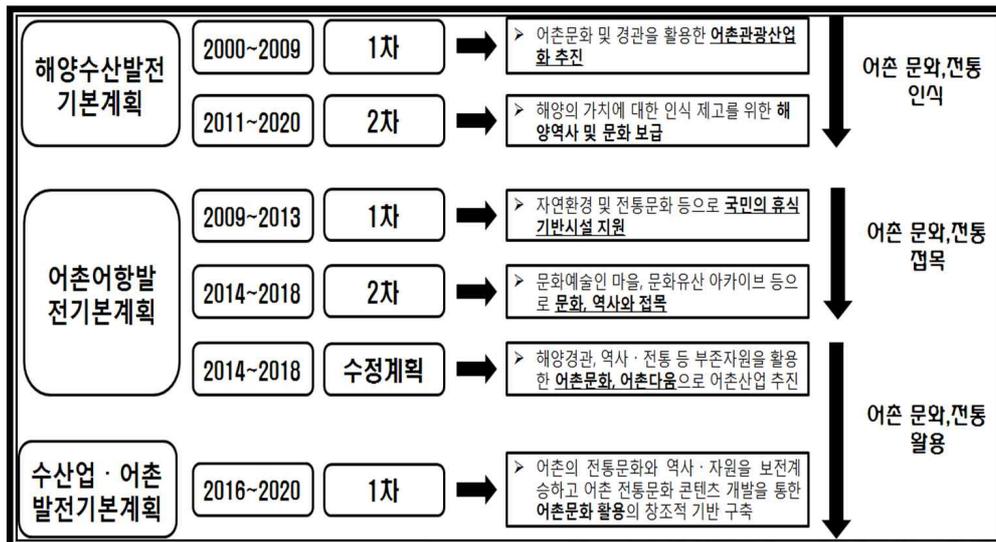
ㄱ 해양문화 관광지 선택 시 고려사항

흥미로운 체험 프로그램 28.4% > 해양문화에 대한 지식 20.2% >
교육적인 효과 19.4% > 접근성 17.2% > 비용 14.6% >
편의시설 0.2%



(해양문화자원 보유 여부 및 효과적 해양문화 관광자원화 방법)
출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문화콘텐츠 활용방안 연구

3. 어촌 관련 계획 및 정책



4. 어촌민속문화보존의 당위성

1 어촌민속문화 보존을 통한 어촌의 활성화 방안 모색

어촌전통문화 콘텐츠 개발의 활용을 통한 창조적 활성화 방안 마련
어촌민속문화 보존의 중요성

2 한국 어촌을 대표하는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의 보존

기존 어촌의 공간(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의 어촌 활동, 생태, 문화(민속), 역사 등의 가치 제고
어촌민속자원의 보존 및 스토리 발굴

3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 정책

지역주민 주도로, 방문객들을 머물게 하며 해양문화를 이해하는 **청색관광(blue tourism) 프로그램**

어촌의 민속문화자원의 보전 및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한국어촌민속마을의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 도모



02

한국어촌민속마을의 개념 및 방향 도출

01. 어촌의 개념과 범위
02. 민속마을의 개념과 범위
03. 에코뮤지엄의 개념과 범위
04. 어촌개발사업의 현황
05. 기존 어촌개발사업의 한계점

1. 어촌의 개념과 범위

㉠ 어촌의 정의

- 지리적으로 **임해지역인 연안이나 도서지방에서 수산 동식물을 채취, 양식, 포획, 가공, 제조하는 등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
- 좁은 의미 :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어민들의 정주공간
- 넓은 의미 : 어촌을 중심으로 한 어항 및 어장을 포함하는 개념



출처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2012), 어촌 · 어항 · 어장을 연계한 소득창출 사업의 유형별 모델 개발

1. 어촌의 개념과 범위

㉠ 어촌은 바다, 섬, 갯벌 등의 다양한 생태자원 경관과 문화보존, 생물다양성, 생물지원 체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자원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어촌관광은 생태적 · 사회문화적 · 경제적 지속 가능한 생태문화관광의 요소를 가짐

- 생태적 지속가능성 : 생태과정, 생물다양성, 생태자원의 유지를 의미
-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 :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문화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
- 경제적 지속가능성 :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개발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을 관리 보존하는 것



1. 어촌의 개념과 범위

어촌은 자연자원(수산물, 생태자원, 자연경관, 지형 등) 과 문화자원(전통풍습, 전통 가옥, 전통 어구·어법, 전통 음식문화, 전설·설화, 지역의 역사성, 축제 등)로 구성



보령시 원산도 전경

섬과 해안(자연경관)

- 서남해역의 가장 큰 특징은 리아스식 해안과 다도해
- 섬과 바다는 어촌의 지선어장으로 자연산 수산물을 채포 및 각종 양식어업의 공간으로 이용 가능
- 어장을 일반적 관광지원이 아닌 문화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



서천군 월하성마을의 갯벌체험

갯벌습지와 생태자원

- 서해갯벌은 북해연안, 캐나다 동부연안, 아미존유역, 미국동부 조지아 연안과 함께 세계 주요 갯벌로 꼽힘
- 갯벌이 갖는 생물의 종다양성이나 생태적 가치는 주목 받지만, 상대적으로 생계타전을 잃은 어촌 주민의 생활 터전을 보존한 한국어촌민속마을 건립 중요



풍어제

역사문화 및 생활문화자원

- 섬과 해양문화, 어민들의 생활사를 이해하기 위한 해양사 등의 지원
- 바다와 갯벌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생애 이야기, 풍어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구축한 다양한 요소들(의식주로 표현되는 삶, 어로 수확물 처리 방식과 과정, 민요, 신앙과 의례, 설화 등)

2. 민속마을의 개념과 범위

민속마을은 현재 두 가지의 형태로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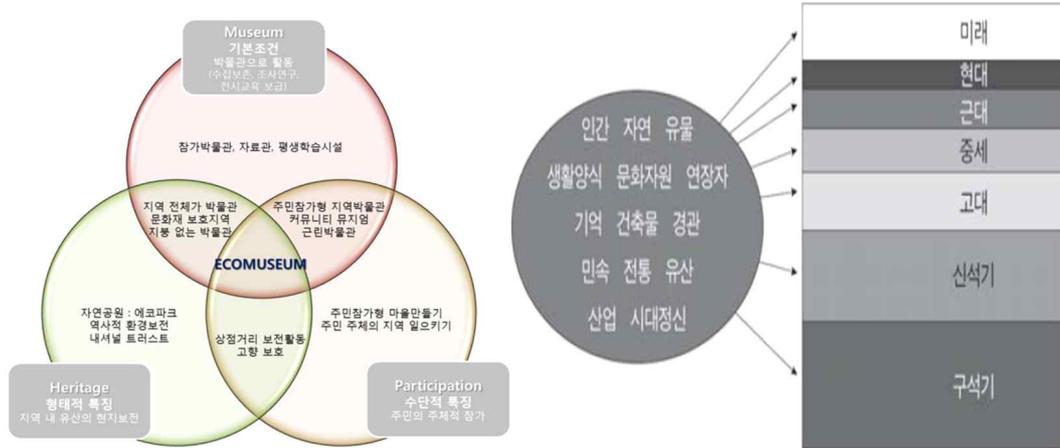
- 전통민속마을 : 문화재보호법 상 전통마을로 보존해야 될 대상으로 민속마을을 지정하여 관리
-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고유의 전통문화와 공간을 보존 및 활용한 전통문화마을
보통은 관광 및 상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경우이며, 주민이 거주하거나 거주하지 않고 전통문화 요소를 재현하여 전시하는 경우도 있음

	문화재 보호	문화적 특징	프로그램	관광 활성화	관리 조직	전경	구분	주요 조성내용	전경
안동 여회마을	원형 보존 원칙	말반과 서민문화 공간	유교체험, 하회 별 신궁 등	높음 한국이미지 대표	시와 보존위원회 협조		용인 한국 민속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현된 고건축물과 민속자료를 전시하여 국내외 관광객에게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 제공 전시가옥 약 270여동, 전통공예품공방 20개소,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5개소 등 각종 편의시설로 구성 전통가옥, 전통의례, 민속신앙, 징터 등 선보임 	
경주 양동마을	원형보존 원칙	조선시대 반가의 형태가 잘 보존	유교문화, 전통생활 학습 등	중간/미흡	보존위원 회			순창 전통 고추장 민속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고추장 장만을 한곳에 모아 전통 고추장 제조법을 다음 시대에 전수하고자 순창군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형성된 마을 총 46가구로 구성된 마을로, 민속마을 부녀회, 민속마을 고추장조합, 순창군식품과학연구소 등이 있음
제주 성읍마을	성곽 내외 자용	대부분 조각 성곽 내외 구분	성곽 관아 채림, 정의굴 민속현마당 등	의존도 높음 관광/상업	도와 시 홍보보존 위원회		경주 교촌한 옥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 명문가의 생활철학을 활용한 교육 체험관광명소로 조성 사업기간 : 2008-2012년, 사업비 : 170억 옛 생활문화 체험을 위한 전통한옥숙박시설, 저itz거리 등 구성
강원 고성 왕곡마을	개 보수 부분허용	전통 농촌경관	계절별 민속체험 등	중간/미흡	도와 보존위원 회 협조				
아산 외암마을	개 보수 부분허용	고택, 마을 전체 돌각담, 전통 정원 경관	팜스테이, 정물문화제, 김장제 등	높음	시와 보존위원 회 협조				
순천 낙안읍성	개 보수 부분허용	성곽마을 형태, 대부분 조각	낙안민속문화 축제, 남도음식문화 축제 등	높음	시와 보존위원 회 협조				

3. 에코뮤지엄의 개념과 범위

에코뮤지엄의 개념과 범위

- 인간을 포함하는 자연생태 모드를 아울러 특정한 유산지역을 뮤지엄의 범위로 설정하고,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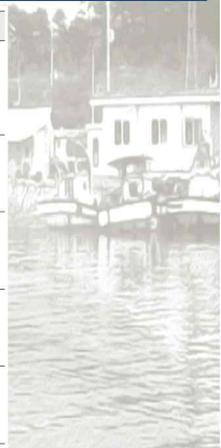


4. 어촌개발사업의 현황

현재까지 진행된 어촌개발사업의 일환인 어촌관광사업 현황

- 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어촌관광개발사업 등
- 초기에는 관광농원, 민박촌, 어촌민속전시관 등 단일 아이템 개발 및 시설조성 차원에서 이루어지다가 향후 어업인들이 경영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바뀜

구분	사업 내용	사업 규모	사업 연도	
초기 어촌 관광 사업	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	•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사업 시행 • 총 4개소(당진 신평면 매산리, 신악 흑산면 진리, 해남 송지면 갈두리, 보선 회천면 율포리) 개발	지역당 30억 원	1998~2001년
	어촌민속 전시관 건립사업	• 8개소에 어촌민속전시관을 건립 (완도군, 거제시, 삼척시, 안산시, 영덕군, 제주도, 울산시, 부산시)	지역당 60억원	2000~2006년
최근 어촌 관광 사업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 어촌계 단위 사업 • 어촌체험기반시설, 편의시설, 소득시설 지원 불가	어촌계당 5억원 이상 (자담 5%)	2001~2017년
	어촌관광 개발사업	• 고품격 어촌관광단지 개발 • 2011년 18개 시범사업 완료 이후 신규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지역당 50~60억 원	2005~2011년
종합 개발 사업	어촌종합 개발사업	• 1단계(1994~2008년)에서 160개 권역에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며, 2단계(2007~2013년)에서는 65개 권역에서 사업이 진행됨	지역당 50억 원 이내	1993~2017년



5. 기존 어촌개발사업의 한계점

1 어촌의 입지 및 특성에 따른 사업화 문제

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통해 지역을 특화하는 사업 추진보다는
어촌의 기반 환경 개선에 치우침

2 지역주민 및 전문가 참여의 부족 내발적 발전의 문제

주민과 관련 전문가의 참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체계가 마련되지 못함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계획 등으로 이어지기 힘든 구조

3 기존 사업과는 차별화된 한국어촌민속마을의 조성 필요

한국의 어촌 활동, 생태, 문화(민속), 역사 등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간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전문가로 성장하는 선순환 과정 필요

어촌 지역의 여건 및 잠재력을 고려하고, 지역주민이 함께 주체가 되는

한국어촌민속마을의 조성이 필요



03 한국어촌민속마을의 콘셉트

01. 한국어촌민속마을 관련 사례
02. 한국어촌민속마을의 조성(안)

1. 한국어촌민속마을 관련 사례

📌 에코뮤지엄 사례

스웨덴 크리스티안 스타트 에코뮤지엄

- 주요 프로그램
 - 습지 및 연안 생태 체험 프로그램
 - 어류, 조류, 양파총류, 식물 등 습지 및 연안에 서식하는 다양한 동식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실시
- 개요
 - 도시 전체가 생태 체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이를 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도모
 - 지속가능발전의 모델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보전-발전-지원 등 3개의 키워드로 운영
 - 습지대, 숲, 농경지, 해안, 담수 등 총 10여 개의 테마



스웨덴 베르그슬라겐 에코뮤지엄

- 주요 프로그램
 - 철광산업의 모든 것을 체험,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
 - 과거 시설을 현지 보전하고 현장 내에서 관람하는 프로그램
- 개요
 - 19세기 말 철광산업이 발달하였던 지역적 특색을 살려 과거 철광석의 채굴, 운반, 제련, 철제기구의 제작 과정을 엮은 하나의 컨셉트로 진행
 - 매년 8월 둘째 주 일요일에 실제 용광로와 대장간 등을 재현
 - 지자체의 행정 지원, 사업초기 자원조사 진행을 제외하고는 600여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에 의해 프로그램이 운영됨



1. 한국어촌민속마을 관련 사례

📌 융합형 에코뮤지엄 사례

스웨덴 스칸센 민속박물관

- 주요 프로그램
 - 19세기 스칸디나비아에서 시초된 것으로 전시물들이 야외에 위치(living museum, living farm museum, 동물원 있음)
- 개요
 - 1891년에 설립되고, 면적은 300,000㎡로 산업혁명 이전의 사회상을 재현하여 전시하고, 약 150여 채의 전통가옥을 전국 각처, 일부는 노르웨이에서 옮겨와 다시 재조립함
 - 모든 가옥은 방문객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다양한 시대의 스웨덴 모습을 볼 수 있고, 특히 지역 고유의 동물인 들소, 갈색곰, 무스, 여우, 늑대 등도 함께 볼 수 있어 연 13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함



프랑스 알자스 오픈 에어 뮤지엄

- 주요 프로그램
 - 과거의 생활상을 직접 관람하는 것 외에 냄비만들기, 새끼돼지 돌보기, 전통 어선 타기, 마차타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 마차 바퀴 제조와 같은 전통 기술과 지식을 보전하고 있음
- 개요
 - 250,000㎡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 프랑스 알자스 지방의 마을을 재현한 곳으로 다양한 생활을 엿볼 수 있으며, 실제로 과거로 온듯한 느낌을 방문객에게 제공함
 - 건물들은 대체로 15세기~18세기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고, 와인 제조장 및 저장창고, 대장간, 제분소, 빵 가게, 농장 등의 70여 채의 건물들을 실제 마을에서 옮겨와 재조립함



1. 한국어촌민속마을 관련 사례

테마파크형 사례

덴마크 리베 바이킹 센터(융합형 에코뮤지엄)

- 주요 프로그램
 - 바이킹 시대를 재현한 것으로 역사교육을 비롯하여 다양한 체험활동과 전통 공예활동 가능
- 개요
 - 리베라는 도시는 8세기경 형성된 도시로 덴마크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랜 도시 중 하나, 바이킹 센터는 1992년에 재현
 - 바이킹센터에서는 과거 바이킹의 생활을 경험할 수 있으며, 총 3가지의 시대로 구성되어 있음
 - 8세기의 사장과 980년의 농장을 비롯한 5개의 건물이 연결된 긴 집, 825년의 가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건축물은 역사적 고증을 통해 재현됨, 학교와 연계되어 있음



한국 용인민속촌(테마파크)

- 주요 프로그램
 - 야외에서 만나는 체험형 전시와 전통방식을 계승한 생활 공예 및 한국 민속촌 드라마 축제 등을 개최
- 개요
 - 우리나라의 민속, 전통적 삶을 종합적으로 재현한 역사문화단지, 실제 주민이 살고 있지 않은 테마파크형
 - 민속마을은 지역별 전통가옥, 관아, 서당과 서원, 전통의례 및 공예체험시설 등으로 구성, 놀이마을은 눈썰매장, 놀이공원으로 구성, 전시마을은 조각공원, 전통민속관 등으로 구성
 - 한국민속촌은 기업이 운영하고 있으며,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구성한 전통테마파크



2. 한국어촌민속마을의 조성(안)

1안 : 에코뮤지엄 (보존)



- 장점
 -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를 보존하고 지속 가능
 -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역주민이 주체적 참여
 - 시설 조성과 운영비가 적게 들
- 단점
 - 지역에 현존하며 축적된 문화 자원의 부족
 - 인적 자원의 부족

2안 : 융합형 에코뮤지엄



- 특징
 - 기존의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최소한의 시설 조성
 -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협의체 발족 및 인적네트워크 구성)
 - 충남을 대표하는 어촌 관련 자연 및 문화자원의 조사 필요
- 프로그램
 - 어촌역사문화(체험)형, 생태체험형(생태관찰형, 갯벌체험형, 어업체험형) 등이 융합된 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화

3안 : 테마파크형 (가공)



- 장점
 - 운영하는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 활성화
 - 다양한 테마로 가공이 가능
 - 현대화된 시설의 이용 편리
- 단점
 - 지역의 자원 및 주민의 소외
 - 시설 조성과 운영비가 많이 들
 - 지속성이나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 부족



04 논의 주제

1. 연구의 추진 경위



주요 논의사항

- ① 한국어촌민속마을의 콘셉트 도출
- ② 충남의 경쟁력 있는 어촌자원, 문화자원의 발굴
- ③ 한국어촌민속마을에 담겨야 하는 콘텐츠 도출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